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왜곡된 결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20년 1월 14일에 합동 교단 56명의 노회장들이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입장문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합동 교단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가 이상원 교수의 추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왜곡된 결정에 대하여 합동 교단 88명의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신대 정채성 훼손을 우려하는 합동 교단 노회장들의 두 번째 입장문

- ####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 1)
1. 지난 해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강의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 등에 대하여 학교 대책위원회는 심의 결과, 징계위원회 회부 시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따라서 학교 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이사안은 이미 무효로 종결되었다.
 2. 그런데 재단이사회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다.
 3. 더 나아가서 올해 첫 회의인 1월 16일의 이사회에서 재단이사들은 이상원 교수에게 추가 징계를 덮어씌워 징계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 추가 징계 혐의란 다음과 같다.
 - 옌다네, '이상원 교수가 원래는 성희롱 여부 사안 있었던 것을, 반동성에 강의를 탄압하는 진영논리 사건으로 둔갑시켰고, 따라서 총신대학교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영덕 재단이사장은 이 사안이 엄중하므로 '사회적 정의'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4. 그러나 이상원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56개 노회의 노회장들이 발표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이라는 지난 번 성명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반동성에 활동에 대한 탄압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 일이 없다. 따라서 재단 이사회가 그에게 씌운 추가 징계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처사는 위법적 및 월권적 조치이며, 또한 합헌적 활동과 강의를 하는 그에게 대한, 오히려, '역지별'이다.

5. 재단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56개 노회장들이 벌이는 자발적 시민운동과 이상원 교수의 합헌적 교수 활동에 대한 위법적 및 월권적 억압을 철회하라.
6.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가 신학자적 신앙과 지식, 양심에 기초하여 동성성행위와 이성성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및 보편적 차이와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진리를 그대로 전한 정상적 강의를 파렴치한 성희롱으로 몰아가려는 반헌법적 반성경적 징계결정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7. 재단이사회는 당신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정의'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 정당하게 근거하고 있는지 근거를 밝히고, 그것이 총신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성경적 신학과 교리와 어떻게 상충되지 않는지 그 근거를 밝히라.

(동참 노회장)

강요한(평안노회장), 공인식(북부노회장), 박양구(대구노회장), 김광이(경기노회장), 김대원(함남노회장), 김동준(대구노회장), 김동혁(경상노회장), 김두홍(대경노회장), 김만중(서대천노회장), 김병욱(전남노회장), 김영길(서부노회장), 김용석(관서노회장), 김우현(중부노회장), 김자현(서평안노회장)

장), 김정열(목포노회장), 김진덕(경북노회장), 김철권(인천노회장), 김태진(영인노회장), 김현용(소래노회장), 김훈(경남노회장), 나종래(군산노회장), 노갑춘(서광주노회장), 류만옥(서대구노회장), 류제이(대전중앙노회장), 류준식(영천노회장), 민경수(남대구노회장), 민경식(남부노회장), 민만기(영주노회장), 박건(경기도노회장), 박만규(수원노회장), 박승규(충주노회장), 박이현(여수노회장), 박재호(남서울노회장), 박종걸(평서노회장), 박종신(남부산노회장), 배병렬(동광주노회장), 백영태(영주노회장), 서성원(충북노회장), 서정수(전주노회장), 서종대(평창노회장), 석광희(영청노회장), 성경선(경남노회장), 신안식(목포제일노회장), 신규찬(남부산노회장), 양석봉(진주노회장), 양성태(울산노회장), 오정욱(전북제일노회장), 우기종(남경기도노회장), 유수복(경북노회장), 윤삼중(동대구노회장), 윤현하(호남노회장), 이강식(서전주노회장), 이정완(함평노회장), 이상현(경인노회장), 이수덕(여주노회장), 이윤동(무안노회장), 이월수(전남제일노회장), 이창현(남광주노회장), 이재홍(홍익노회장), 이진철(동부산노회장), 이만용(군산노회장), 임계빈(영양제일노회장), 임병욱(서서노회장), 장기주(순천노회장), 장환민(대구노회장), 전용길(전북서노회장), 전중남(서울경서노회장), 정구영(남평안노회장), 정래희(구미노회장), 정해룡(부산노회장), 조우영(남부산노회장), 조정봉(서인천노회장), 주만철(서수원노회장), 차동진(목사(서경노회장), 차영진(영주제일노회장), 채종성(영서노회장), 추형호(동전주노회장), 최명호(충청노회장), 최윤영(서수원노회장), 최현종(고흥보성노회장), 하재호(동대전제일노회장), 하종성(영남노회장), 홍석기(목포서노회장) 총 88명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및 군동성에 문제 규탄

“동성애는 온 세계를 긴장시키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군인권센터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동성에 및 인권 공동대책위원회 정책 발표 및 기자회견이 지난 2월 21일 (금)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실에서 열려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건과 군동성에 옹호 조장 문제, 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 문제에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간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발제에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는 김성한 목사(차별금지법 대책위 서기)의 사회로 김정만 목사(차별금지법 대책위)가 기도하고 문영용 목사(이슬람 대책위원장)가 설교를, 김병훈 목사(단군상봉대책위원장)가 축도했다.

문영용 목사는 설교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다시 온백성이 가슴 치며 통분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재난의 시한폭탄이다”라고 말하고 “이 동성애는 온 세계를 긴장시키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만 힘들게 하지만 동성애의 재난은 결국 육체는 물론 심령까지 파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동성애로 인하여 개인주의와 폐락주의로 질서가 깨지고 생육 번성이 중단되며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악한 유희의 소리와 갖가지 파괴적 외침들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기독교 전당까지 세상의 것대로 유희한 안락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마침내 우리나라는 (제2의 실라원)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란대국민연합 운영 위원장)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김영길 대표(서부권 연구소 대표)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동성애 옹호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고희석 박사(예정통합 협회)가 “동성애대책위원장”이 “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 부당하게 간섭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제목으로, 주요섭 대표(차별금지법반대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각각 발제를 했다.

이날 정동섭 교수(사이버종교개혁대책연맹 총재)가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니쁜 인권 규탄, 한국교회연합 동성애 & 인권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의 부당하고 월권적인 징계위 회부 결정을 규탄한다
-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의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라!
- 총신대 이상원 교수 강의 중에 동성애 관련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교육적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었다
-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도 2019. 12. 13. 심

의에서,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사안을 재단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상원 교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한국 교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징계위 회부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성전환 부수관 전역 심사에 간섭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방부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정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입대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이에 군 복무의 대상이 아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부수관 변희수 하사는 군 병역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는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을 생각할 때, 군의 이러한 결정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며 적절하며 조치이며 대다수 국민은 이를 환영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전역 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린 것은 군 기강의 확립과 국가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당한 간섭이며 이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특히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와 군복무를 기피하고 처벌까지 받은 입대후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한민국 군대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군인권센터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기독교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인 총신대와 숭실대, 한남대 등에 대하여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고 권고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며, 이를 규탄한다.

총신대는 기독교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이며,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직원을 뽑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기독교 대학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성경적 창조론 ① 한영봉 교수 // 전북대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21세기 과학기술은 과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제외한 기계와 로봇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인공 지능이 문명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미래 사회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식과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지

기 쉽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혼란은 기독교 신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혼란 때문에 안타깝게도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창세기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성인

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내용을 믿고 가르치는 '성경적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반(反)지성적이고 비(非)과학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로 그들은 성경(특히 창세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보다 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진화론을 더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며, 대신 비유나 상징 또는 신화로 해석하려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한 창조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창조가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면, 피조 세계에는 그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람 발행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달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